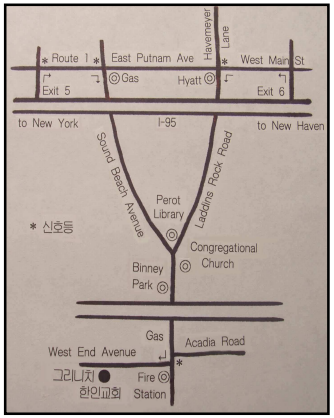
그리니치 한인교회는 커네티컷 남부 그리니치에 자리잡고 있는, 믿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모 임		시 간	장 소	비 고
주일예배	1 부	주일 낮 12시	본 당	찬양은 없이 40분 동안
	2 부	주일 오후 1시	본 당	예배 뒤 점심 및 친교
교회학교	주 일	주일 낮 12:45	교육관	성경공부 및 예배
	주 중	금요 저녁 8시	소예배실	중고등부 리더 훈련
말 씀 과 기 도	말씀나눔	화요 아침 10시	교육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찬양예배	금요 저녁 8시	본 당	찬양, 강해설교, 기도
	기 도 회	토요 아침 6:30	본 당	말씀, 기도, 아침식사



◆ I-95 남쪽에서 오실 때: 1) 커네티컷 Exit 5번으로 나와 램프 끝 신호등에서 우회전 (E. Putnam Ave), 2) 첫 신호에서 우회전 (Sound Beach Ave.) 3) 기차 굴다리를 지난 뒤 첫 신호등에서 우회전 (West End Ave.). 4) 약 200미터 가시면 왼쪽에 교회가 보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of Old Greenwich 건물)

◆ I-95 북쪽에서 오실 때: 1) 커네티컷 Exit 6번으로 나와 램프 끝 신호등에서 직진하고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 (Harvard Ave.), 2) 첫 신호에서 좌회전 (West Main St. Rt. 1) 하고 두 번째 신호에서 좌회전 (Laddins Rock Rd.). 그 뒤는 위의 3) 이후와 같음.

사랑 (LOVE) 그리니치 한인교회 주간소식지 발행인: 담임목사 권수경

GREENWICH KOREAN CHURCH
38 West End Avenue
Old Greenwich, CT 06870
(203) 637-8743 (203) 829-1595
Email: koreanchurch@optonline.net

Stamp Here

TO

사랑 LOVE

그리니치 한인교회
GREENWICH KOREAN CHURCH
주간소식지 Weekly Newsletter
제 11권 37호, 2010년 11월 4일

저와 아내가 신혼살림을 하던 서울 잠실의 주공 1단지 아파트는 가로수가 은행나무였습니다. 하여 가을만 되면 잿빛 건물 사이사이뿐 아니라 아스팔트까지 노란 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길이지만 그것도 단풍이라고 돌이 채 안 된 호성이를 안고 아내와 함께 걷곤 했습니다.

여름 내 초록빛이다가 가을이면 노랗게 바뀌는 은행잎을 보며 초록색 잎에서 파란 빛이 빠져나간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간 파랑은 하늘로 올라가 가을 하늘이 그만큼 더 파래진 거고요. 이전 예배당 뜰에 있던 벚나무 잎이 여름 내내 자줏빛이다가 가을이면 빨갛게 변하는 것도 같은 이치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내내 푸르던 잎이 빨갛게 변하는 건 무슨 조화일까요? 물질의 삼원색 아니라 빛의 삼원색까지 동원해도 초록이 빨강으로, 주황으로, 보라로 바뀌는 건 설명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여 인터넷을 뒤적여 보았더니 은행나무 길을 거닐며 체득한 우주의 비밀이 엉터리였더군요. 처자식 데리고 득도를 하겠다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던 거지요. 그것도 아침이 아닌 오후에 말입니다.

여름 내 잎을 푸르게 하는 건 엽록소라 했던데 그거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갖고 햇볕을 이용해 영양분인 글루코스와 산소를 만들어내는 나무의 음식 공장이 엽록소지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장이 문을 닫고 엽록소가 파괴되는데 초록에서 파란 빛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엽록소 전체가 사라진다 하였습니다. 초록이 그렇게 사라지면서 여름 내 초록빛에 눌려 빛을 못 보던 소수, 그러니까 마이너티리 색소가 제 모습을 나타내는데 노랑과 주황이 주로 그렇다 하였습니다. 저희들끼리 색을 섞고 나누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남들 모르게 누르고 밀려나고 하는 것이었더군요.

빨강이나 보라의 경우는 숨어있던 빛깔이 아니라 아예 새로 창조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을 때 미처 창고까지 못 가고 잎에 남은 글루코스가 가을의 서늘한 공기 가운데 햇볕을 받으면 붉은 빛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가을이라 문 닫기에 바쁜 그 와중에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뒷마당을 덮은 갈색의 떡갈나무 잎은 뭐냐구요? 그건 제 일거리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갈색은 그냥 잎에 남아있던 찌꺼기라고 합니다.

두 해 전 저희 뒷마당 한 구석에 은행나무 싹이 하나 났습니다. 잠실 살던 그 무렵이 문득 그리워 조금 안쪽으로 옮겼는데 두 해가 지난 지금 잎 다섯 장만 달랑 붙어 있습니다. 수가 적어 그런지 채 노래지지도 않고 떨어집니다. 언제 자라 우수수 잎을 날려 줄까요? 뒷마당을 가득 덮은 잎을 태우는 대신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이제 곧 어머니하고 나눌 옛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주간 소식

지난 주간에는 금요 찬양예배와 토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금요 **찬양예배**는 부흥회 후유증에다 엄청난 교통체증까지 겹쳐 삼십 분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많은 찬양과 강해설교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을 간단히 살폈는데 사랑을 말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미움을 함께 말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기 때문임을 먼저 생각하였고 사랑과 미움이 대조되듯 선과 악, 참과 거짓이 공존하며 맞서는 이 세상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날도 교회와 개인의 여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토요 아침의 **새벽기도**는 찬송과 기도에 이어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곧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묵상하였습니다. 이어 바울이 자신의 존재를 강조한 것도 오직 그 복음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며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나 자신을 느끼고 강조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 맥도널드 아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와 사귐이 있었습니다. 1, 2부로 드린 **주일예배**는 찬양팀 인도로 많은 찬양을 먼저 주께 드렸습니다. 권 목사님의 목회기도를 통해 우리 간구를 주께 아뢴 다음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교회 소식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시편 말씀을 함께 읽은 다음 설교 "우상을 박살내라"를 들었습니다.

> 다섯 세기 전 루터가 교회를 개혁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교회와 교권자의 우상을 깨뜨린 일이었다. 교권자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 주장하면서 주님 대신 중보자 노릇을 하려 하였으며 그 열쇠를 무기 삼아 교인들을 겁주어 억누르고 거짓 교리로 호도하였다. 그런 어둠의 역사가 오래 간 것은 교인들이 무지도 문제였지만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든 교회와 거짓 권위에 눌려 그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교인들의 처지 때문이었다.
>
>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어서 죽어 있고 아무 감각도 없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사람도 그 우상처럼 모든 감각을 상실하고 죽은 자처럼 된다는 데 우상 종교의 위험성이 있다. 다섯 세기 전의 종교개혁은 온 유럽을 그런 우상숭배의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는데 하나님은 르네상스를 통해 루터와 칼뱅 같은 일꾼을 만들어 교회를 개혁하게 하셨다.
>
> 오늘날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주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중보자 노릇을 하려는 목사가 많다. 스스로 우상이 됨으로써 모든 감각과 판단력을 잃고 죽은 수공물처럼 되어 버렸고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수많은 교인들 또한 죽은 자처럼 되어 생각하는 능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 개혁 기념일을 맞아 첫째 우상을 섬기려는 본성이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람은 절대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자.

이어 오직 주님만이 온 세상의 빛이심을 노래하였고 헌금을 드린 다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권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학교는 먼저 다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다음 전체 주일학교가 한 자리에 모여 장학일 목사님 인도로 성경 지식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귐의 시간에는 주상분 집사님이 사랑으로 제공하신 귀한 점심을 함께 먹으며 주 안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각 방을 사랑의 열기로 채우는 가운데 한곳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세례교육반은 인도자 사정으로 한 주 쉬었고 본당에서는 성가대 및 찬양팀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1) 감사의 달 11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이 달 둘째 토요일 (13일)에는 사랑방 모임이 있고 셋째 주일 (21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일학교와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 (28일)에는 새해 예산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3) **주일학교 소식**: 지난 주일 가진 주일학교 교사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의논하였습니다. 많은 기도와 강력한 협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1. 유년부를 중고등부에서 분리하여 예배도 따로 드리기로 하고 이은파 사모님이 황영주, 박성민 선생님과 함께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2. 교사 단합대회를 20일 (토) 양재하 부장 집사님 댁에서 갖고 학부모회의 (PTA)를 다음 날 (21일 주일) 오후에 갖기로 하였습니다.
3. 그리고 장 목사님 인도로 중고등부 금요모임을 계속 확장해 나가기로 하였고 (부모님들의 협조 필요), 고영범 교우님 및 몇 교우님들의 인도로 성극 등 성탄절 준비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번 주에도 금요 **찬양예배**와 토요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5) 오는 주일 (7일) 일광절약시간이 해제됩니다. 지난 봄에 강제 납부하였던 한 시간을 토요일 되돌려 받아 여유가 좀 생기겠습니다.

6) 서정수 집사님이 두 주간 덴버를 방문하십니다. 기도 바랍니다.

7)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필복덕 권사님 (박석남 집사님 어머니), 김광자 권사님 (지승의 집사님 어머니), 이귀애 권사님 (배종순 집사님 어머니, 캘리포니아), 이상만 교우님 (천아라 교우님), 목정수 집사님 (캐나다), 박재실 권사님 (박상원 교우님)을 기도 가운데 꼭 기억합시다.